



대한민국 제품혁신상 대상

삼성전자(주)
Bespoke AI 하이브리드(AI 홈)
25년 연속 수상

Bespoke AI 하이브리드(AI 홈)

더 맞춰주고 더 아껴주는 진짜 AI 냉장고

Bespoke AI 하이브리드(AI 홈)



CHECK POINT

- ✓ AI 홈(9인치 터치스크린으로 모니터링 및 제어)
- ✓ 냉장고 최초 펠티어 소자 적용한 하이브리드 쿨링
- ✓ 사용 패턴 감지 및 분석하는 AI 하이브리드 정온 모드
- ✓ 용도에 맞게 서랍칸을 3가지 모드로 설정해 사용하는 멀티 팬트리
- ✓ 가벼운 터치나 음성 발화로 손쉽게 문을 여는 오토 오픈 도어(자동 문 열림) 기능 탑재
- ✓ 빅스비 음성 인식으로 냉장고 상태 확인 및 다양한 서비스 활용



AI와 혁신기술이 만난 하이브리드 냉장고

삼성전자가 9인치 스크린 기반의 AI 기능과 펠티어 반도체 소자 적용 등 혁신적인 냉각 기술을 탑재한 'Bespoke AI 하이브리드(AI 홈)' 냉장고를 선보였다.

Bespoke AI 하이브리드(AI 홈) 냉장고는 일반적인 컴프레서 방식과 펠티어 반도체 냉각 방식을 함께 활용하는 'AI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을 적용했다.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상황에 따라 2가지 냉각 시스템을 병행하거나 분리해 작동 시킴으로써 빠른 냉각과 높은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실현한다.

AI 하이브리드 쿨링 기능은 삼성전자가 2024년 국내 가정용 냉장고에 처음 적용한 기술로,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거나 많은 식재료를 보관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냉각 성능을 제공한다. 특히 펠티어 반도체 소자의 정밀한 온도 조절 기능을 활용해 민감한 신선 식품도 더욱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의 AI 라이프스타일 기능 강화

Bespoke AI 하이브리드(AI 홈) 냉장고는 9인치 터치스크린을 탑재해 다양한 AI 기능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날씨나 일정, 식단 추천 등 개인화된 정보를 보여주는 '데일리보드' ▲식재료를 자동으로 인식해 목록을 생성하는 'AI 비전 인사이드' ▲삼성의 AI 음성비서 '빅스비' ▲연결된 기기 정보를 3D 지도 형태로 시각화해 제어할 수 있는 '맵뷰' 등 AI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2025년형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은 인식할 수 있는 신선 식품의 종류를 37종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식품 이름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푸드 리스트를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AI 푸드 매니저' 기능은 자주 구매하는 가공·포장 식품을 편리하게 관리해 준다. 학습을 통해 자주 보관하는 가공식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최초 1회 등록 이후에는 자동으로 해당 식품을 인식해 푸드 리스트에 등록한다. 이 밖에도 내장된 스크린으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삼성 TV 플러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어 주방에서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냉장고를 단순한 가전이 아닌 AI 기반의 홈 어시스턴트로 발전시키며, 미래형 스마트홈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CEO INTERVIEW

김철기 삼성전자(주) DA 사업부장(부사장)

삼성전자가 제품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더 편리한 일상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온 임직원의 땀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사의 불편과 수고를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Bespoke AI 가전을 선보이며 'AI 홈(Home)'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각 가전이 AI로 진화한 것은 물론, 전체 기기들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자에게 알아서 맞춰주는 진정한 AI 홈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가전에도 모바일과 같은 스크린을 탑재하고, 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로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말로 가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전사용 경험의 질도 크게 높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반세기 이상 지속해 온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람을 위한 변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